

文측,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고발키로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색깔론' 차단에 주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4일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유엔에 선대위 대변인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기술한 데 이어, 관련한 메모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

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며 '색깔론'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자료 일부를 공개,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전날 TV토론에서 유

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세에 "여러번 말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당시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며 "유 후보가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라고 느껴왔는데 이 대신 김목에서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펴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적극 반격했다.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또한 "빙하같은 남북관계 움직이려했던 송 전 장관이 빙하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시스

김광수, 노인일자리 특고세 6억 확보

김광수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북지역 노인특화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노인일자리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내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기업 육성·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지역에 대한 교부세 배정액이 대폭 증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전북지역 노인 특화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교부세를 행사부에 신청했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사퇴 반대'와 '의총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총을 열고 유 후보 사퇴 및 후보단일화 여부와 향후 선거운동 전략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무소속기초의원 3명, 국민의당 입당

이완구 전주시의원과 박천호·김형대 부안군의원 등 3명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완구 시의원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입당이 당의 의연을 확장하고 한걸음 더 국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며 "지난 세월 압축 같은 보수정권과 적폐세력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시의원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호남이 주를 이루는 정권교체와 국민이 이기는 대선승리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당으로 인해 국민의당 소속 전북 지역 기초의원은 51명으로 늘어났다. /인재용 기자

최인정 의원, 군산조선소 외면하는 정부 규탄

"각 정당 대선후보들, 즉각적인 군산조선소 살리기 대책 촉구"

군산조선소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이를 위해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신속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24일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도민을 우롱한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즉각적인 군산조선소 살리기 대책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유지하

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자체 변화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예정에 협력업체 절반이상이 파산과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짐에도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7일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신박신폰드'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의 건조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최 의원은 "대우조선은 조선해운의 불황기 경영부실과 회계조작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4조 2,000억원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조9,000억

원 추가 지원, 채권 2조9,000억원을 출자전환해 주는 부채 탕감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강렬히 비난했다.

그는 "그야말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앞장서 부실기업에 10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는 반면, 군산조선소에는 단 한 척의 건조도 맡기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최인정 의원은 "정부의 대우조선 예산 지원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범위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우조선과 군산조선소를 차별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라도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군산조선소 실질적 대책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도당, 투표율 높이기 총력전 나서

'촛불대선'이 증반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투표율 높이기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보수진영의 분열로 선거 자체에 대한 무관심 증, 정당 및 후보의 난립, 네거티브전 격화, 징검다리 휴일 등으로 예상 투표율이 6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참여본부는 오늘 오전 8시30분부터 '연탄재 시인'으로 유명한 안도현 교수가 우석대 정문에서, 문재인 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을 책임졌던 전북대 신형식 교수가 12시30분부터 전북대 구정문에서 투표촉려캠페인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지역내 경쟁이 치열해졌다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호남 지지를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면서 투표촉려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안도현 교수는 "벨조선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요즘 청년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극히 일부는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부터 제대로 뽑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내 전 지역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투표촉려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최명철 도의원, "도민행복 위한 밀알의 자세로"

4.1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명철 의원이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최명철 도의원은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갖고 도민에 대한 봉사 의지를 다졌다.

최 의원은 "민의를 정당에서 도민의 대변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민들께서 행복해지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힘차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민 우롱·기만 국민의당 공식 사과하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 유성엽 의원은 정읍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국민의당이 정읍 유세에서 시민들을 현혹했던 여러 말들을 당의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감히 "농담 삼아 한 말"이라 밝혔다며 정통야당의 성자인 정읍의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 것에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1일 국민의당 삼십선거대책위원장인 박지원 대표와 정통영 의원, 유성엽 의원 등은 정읍 명동리루 앞에서 유세를 하며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제는 이때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대사가 될 것이고 여기 유성엽 의원은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시민들을 현혹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안 후보에게 "초대 평양대사, 장관을 이렇게 합의한 것이냐"라고 묻자 안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변명 끝에 "농담 삼아 한 말"이라 표현했다.

이 내용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면서 정읍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과 그 대표, 지역 구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정도였단가 라는 점에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박지원 대표는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며 안철수 후보 역시 박지원 대표, 유성엽 의원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